

석사학위논문

꿈에 대한 표현 연구

- 채색산수(彩色山水)기법을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장 지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꿈에 대한 표현 연구

- 채색산수(彩色山水)기법을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reams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장 지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꿈에 대한 표현 연구

- 채색산수(彩色山水)기법을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reams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장 지 영

장지영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꿈에 대한 표현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 양 화 와 진 채 전 공
장 지 영

인간은 살면서 다양한 꿈을 꾼다. 경험해 보았던 일들이 다시 재생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환상적인 꿈 등 미처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꿈들을 꾼다. 이전부터 인간들은 이 알 수 없는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꿈(夢D,ream)이란 사전적으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시각적 심상을 의미한다. 고대인들은 꿈을 신神적 존재들의 계시, 미래를 알게 해주는 예시적 기능이 있다고 여겨왔고 이후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왔지만 모호하고 가시적이지 않은 특성덕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오게되었다.

필자는 꿈의 언어적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여러 의미를 분류하여 작업에 나타내고자하였다. 하지만 결국 구분한 꿈의 정의는 주체자의 무의식에 있는 욕망, 혹은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에 큰 뿌리를 하나로 두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꿈의 정의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게 되었다.

고대 동아시아 고사에서 묘사되는 이상향의 세계의 배경으로 시작한

산수화를 연구하여 이를 작품 속 세계의 배경을 표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채색산수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택해 작품들에서 나오는 꿈의 묘사, 배경으로 나오는 꿈을 표현하기 위한 산수의 기본 요소, 표현방법을 이론적으로 알아본 뒤 묘사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작에 적용 가능한 채색기법을 직접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업한 연구작들은 현대적 산수 색채연구와 꿈 속 세계를 가시화 해 보여주고자 한다. 꿈을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욕망과 감정을 온전히 투영한 세계로 해석하고 이에 등장하는 여러 화자들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작들은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초석이 되었고 이후 더욱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이 가능한 작품까지 작품세계를 넓히고자 한다.

【주요어】 산수, 채색산수, 꿈, 이상향, 창작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꿈에대한 개념	3
2.2 꿈표현 채색산수 전통	4
2.1.1 꿈을 표현한 전통회화	5
2.1.2 꿈의 배경 채색산수	8
III. 작품연구	11
3.1 현상으로서의 꿈	11
3.2 이상향으로서의 꿈	17
IV. 결 론	22
참 고 문 헌	23
ABSTRACT	24

그 림 목 차

[그림 1] 작가미상, 〈구운몽도九雲夢圖〉, 종이에 채색, 72.6×40.3cm,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5
[그림 2] 안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38.7×106.3cm, 1447, 일본 텐리대학도서관 天理大學圖書館	6
[그림 3] 안중식, 〈도원행주도桃原行舟圖〉, 비단에 채색, 238.6×65.5cm, 1915, 국립중앙박물관	7
[그림 4] 작가미상, 〈靑綠山水圖屏風〉, 비단에 채색, 70.2×288.7cm, 19세기~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10
[그림 5] 장지영, 〈청록산수도모사〉, 33.5×140cm, 비단에 채색, 2017	10
[그림 6] 장지영, 〈보물산(Eldorado)〉, 비단에 채색, 27×45cm, 2018	12
[그림 7] 장지영, 〈바라보다〉, 비단에 채색, 33×43cm, 2019	13
[그림 8] 장지영, 〈서울 이곳은〉, 비단에 금니, 82×62cm, 2019	15
[그림 9] 장지영, 〈성북(城北)〉, 비단에 채색, 36×100cm, 2021	16
[그림 10] 장지영, 〈선녀와 천사〉, 비단에 채색, 21×14.8cm, 2018	17
[그림 11] 장지영, 〈노을산수〉, 비단에 채색, 28×70cm, 2020	18
[그림 12] 장지영, 〈산수야경〉, 비단에 채색, 28×70cm, 2020	18
[그림 13] 장지영, 〈휴식〉, 종이에 채색, 70.2×288.7cm, 2020	19
[그림 14] 장지영, 〈바다의 휴식1〉, 비단에 채색, 37×21.5cm, 2021	20
[그림 15] 장지영, 〈바다의 휴식1~5〉, 비단에 채색, 37×21.5cm(×5), 2021	21

I. 서론

꿈이라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살면서 인생의 30% 정도를 수면시간으로 보내는데,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중 많은 시간을 꿈을 꾸며 보낸다. 꿈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늘 흥미로운 주제로 인간에게 다가왔고, 특히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대에서의 꿈은 신적인 존재들의 계시로 여겨져 왔으며, 인류의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인 성경에도 꿈이라는 것은 늘 종교적인 계시를 받는 행위로 기록되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계시의 의미 외에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도 여겨져 왔다. 그러기에 여러 의미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해석이 필요해졌고, 이에 곧 ‘꿈 해몽’이라는 분야가 발전되었다.¹⁾

꿈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등장시켜 학문적인 해석을 시작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 ~ BC 322)는 자연은 신성(神聖)과 무관한 악령이 지배하는 어떤 것 이라 표현하였다. 그는 꿈 역시 악령이 지배하는 것 이라 생각하여 신성과는 별개로 인간의 심리활동과 관계된다고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꿈의 특징 가운데 ‘인간 정신 활동으로서의 꿈’을 말하고 있다.²⁾ 악령이 지배하는 어떤 것 이라는 표현은 현대에 들어 봤을 때 아직 현실적이지 못한 이론이지만, 꿈이 심리활동과 관계된 최초의 해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꿈의 모호하고 가시적이지 않은 특성 덕에 신빙성도 떨어질뿐더러 각각의 다른 방향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이는 꿈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지금까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현재에 꿈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많은 연구와 작품이 있지만, 필자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해석한 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의미와 함께 개인

1) 이준남. (2007). 『꿈의 혁명』. 도서출판세홍. p. 42.

2) 지크문트 프로이트. 이환 저. (2014). 『꿈의 해석』. 돌출새김. p. 30.

적인 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회화의 이상향적인 세계의 배경으로 등장해 독자적인 갈래로 발전되어 나간 ‘채색산수(彩色山水)’를 활용하여 작품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의 꿈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작품연구로 중요도를 높이고, 청록산수를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꿈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본인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작품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꿈에대한 개념

꿈은 모호하고 가시적이지 않은 특성 덕에 이론적 연구에 명확성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학자들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도 시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꿈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해왔다. 꿈이란 것은 표현하는 주체를 많이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에서 꿈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필자는 꿈을 주제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새로이 해석함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꿈은 수많은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어로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분류된다.

1.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2.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3.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필자는 이 세 가지 의미의 꿈을 종합하여 크게 두 가지로, ‘현상(現象)으로서의 꿈’과 ‘이상향(理想鄉)으로서의 꿈’으로 재분류하였다.

첫 번째, ‘현상으로서의 꿈’. 잠자는 동안의 꿈을 일종의 시각적 현상으로 지칭한다. 꿈의 재료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평소엔 생각지도 못한 기억들이나 오랜 시간 묻어두어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종일 집중하던 문제가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혹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거나 혼자 상상해보았던 일들도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꿈이라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흔하고 인간의 삶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그 재료가 꿈을 꾸는 주체의 내면에서 오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며 필요에 의한 그림을 그리던 동양의 화가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대부터 작품에 자신의 독창적인 세계를 투영하기 시작한 서양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 ‘이상향으로서의 꿈’. 이상향의 꿈을 꾸는 것은 앞으로 살아나갈 지평(地平)과 이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原動力)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현실의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파랑새증후군(Blue Bird syndrome)³⁾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뜻 2. 희망이나 이상 같은 긍정적 의미, 3. 헛된 기대나 생각 같은 부정적 의미를 따로 두지 않고 이상향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합하여 하나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상향으로서 꿈은 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작품의 배경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도교적인 사상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작가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작품뿐 아니라 궁중에서 필요에 의해 제작된 작품에도 이상향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꿈의 정의를 언어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두 가지 의미의 꿈으로 재분류하여 연구작에 이를 따로 나누어 표현하고자 한다.

2.2 꿈 표현 채색산수 전통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꿈을 주제로 한 다른 작가들의 수많은 작품 중 동아시아, 그중 지리적, 시대적 범위를 더 좁혀 조선시대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운몽(九雲夢)’과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도원행주도(桃源行舟圖)’ 이 세 가지 작품을 선정하여 내용과 특징을 연구하고, 작품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산수로 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파랑새 증후군(파랑새症候群) : 마테를링크의 동화극 파랑새에서의 주인공처럼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면서 현재의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증후군. 표준국어대사전.

2.2.1 꿈을 표현한 전통회화

구운몽도(九雲夢圖)



[그림 1] 작가미상, 〈구운몽도九雲夢圖〉, 종이에 채색, 72.6×40.3cm,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구운몽도는 『구운몽(九雲夢)』이라는 소설이 원작으로, 현대의 만화(漫畫)나 소설 속 삽화(插畫)같이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작품이다 보니 풍정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인물들의 행동을 주로 묘사한 작품이다.

구운몽(九雲夢)은 조선시대 김만중(金萬重, 1637년~1692년)이 한글로 쓴 고전소설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대중적인 소설로 유명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성진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육관대사를 통해 꿈에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함으로 그의 허무함을 배우고, 그로 인해 진정한 도를 깨우치며 수련에 정진하여 결국 극락세계에 도달한다는 내용이다. 구운몽은 꿈으로 등장하는 양소유로서의 삶의 전개가 흥미롭고, 한글로 적힌 소설이라 당시 사대부 남성뿐만이 아닌 조금 더 넓은 계층에

게서 사랑받은 작품이라 전해진다. 이를 증명하듯 여러 작가의 회화작품으로도 제작되어 구운몽도(九雲夢圖)로 도해 되었다.

대표적인 구운몽도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운몽도가 있다. 구운몽도는 보통 10폭으로 그려지는데, 해당 구운몽도는 중요 부분이 빠진 채로 8점만이 전해져 2점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종이라는 바탕재의 특성상 비단 위에 채색된 다른 작품들에 비해 화려한 발색의 작품은 아니지만 정교한 산수 표현과 채색으로 표현한 대신에 둥근 곡선의 선으로 표현한 맑은 파도, 구름 표현으로 몽환적인 꿈의 배경을 표현하였다.

몽유도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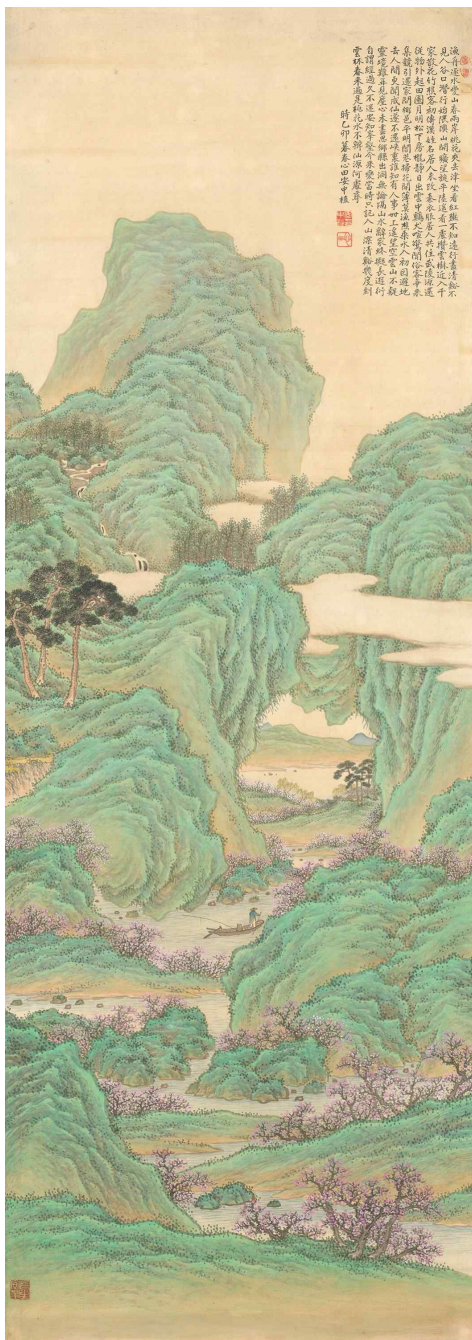


[그림 2] 안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38.7×106.3cm, 1447, 일본
텐리대학도서관 天理大學圖書館

꿈에 대한 작품을 꿈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일본 텐리대학(天理大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이다. 15세기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고 전해지는 안견(安堅, 15세기)의 몽유도원도는 좌측의 하단부터 사선으로 안평대군이 도원(桃源)을 찾아 올라가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꿈이 그려진 기법이나 화풍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나, 실제로 본 적 없는 꿈의 공간을 그려내었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현대의 젊은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뾰족하게 위로 솟아오른 괴석(怪石) 형태의 산맥은 도원을 숨겨두는 형태를 띤다. 촘촘한 비단에 얹은 먹 채색 위에 최소한의 녹색 채색을 올려 표현하여 분홍빛의 도원 묘사가 비교적 화사하게 대비된다.

도원행주도(桃原行舟圖)



[그림 3] 안중식, 〈도원행주도桃原行舟圖〉, 비단에 채색, 238.6×65.5cm, 1915, 국립중앙박물관

도원행주도는 중국의 도연명(陶淵明, 365년~427년)이 지은 『도화원기(桃花園記)』를 바탕으로 한 ‘무릉도원(武陵桃源)’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화면 전체에 짙 차게 산수가 배치되어 있지만 겹겹이 능선을 겹쳐 쌓은 구성과 앞쪽 능선과 뒤쪽의 채색 정도의 차이로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상단의 구름 표현은 최소한의 묘사로 백색으로 채색만 하고 비워두어 답답하지 않게 하였다. 촘촘한 태점으로 산을 탄탄하게 묘사 후 밝은 황토빛 안료를 전체적으로 채색 후 옅은 색의 광물성의 녹색을 사용해 봄의 산색감을 나타내었다. 그림 하단에는 분홍 나무를 배치해 도원의 환상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안건의 몽유도원도보다 이후에 제작되었고 채색 자체가 훨씬 두껍게 올라가 있어 발색이 더 선명하게 올라와 같은 도원을 찾아가는 그림을 그렸음에도 매우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위의 세 그림의 채색법과 그림의 구도, 표현은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이상향, 꿈의 배경으로 산수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위의 세 작품 외에도 산수로 꿈을 표현한 여러 작품들을 거치며, 그저 다른 그림의 풍경으로만 등장했던 산수들이 산수도 자체로도 꿈과 이상향을 나타내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인식으로 점차 전업 화가인 화원(畵員) 들에 의해 그려지던 산수에서, 문인화가들도 산수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정신적인 수련과 교양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전 그 뿌리인 채색산수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2.2 꿈의 배경 채색산수

채색산수(彩色山水)

청록산수(靑綠山水)는 주로 청색과 녹색의 안료를 주로 사용해서 화려하게 채색한 산수화를 지칭한다. 청색과 녹색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채색을 황색으로 칠한 뒤 청록을 칠하거나, 모든 채색 후에 금니(金泥)로 장식선을 더해 주는 등 여러 채색법이 있고, 그 채색법에 따라 소청록(小青綠), 대청록(大靑綠), 금벽산수(金碧山水) 등 세부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이 달라진다. 문헌에서 청록산수는 먼저 금벽산수로 등장한 이후 여러 용어로 나타났다. 후에 이르러 지금까지, 전통적인 채색산수는 청록산수로 지칭해 왔지만, 이는 주로 산수를 표현할 때 사용한 안료가 청색과 녹색이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작품에 색채를 주로 지칭하여 자칫 그 범위를 좁게 나타낼 수 있는 청록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체할 용어를 알아보았다.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 채색 관련 용어는 ‘색을 칠한다’는 의미로 저색(著色), 착색(着色), 설색(設色), 착채(着彩), 시채(施彩), 설채(設彩) 등 다양한 용어가 있으며, 채색화를 뜻하는 용어로는 저색도(著色圖), 채화(彩畵), 엄화(奄畵)가 있었다.⁴⁾ 조선 후기에 청록산수의 명칭이 등장하기

4) 이수미, (2006). 조선시대 청록산수화의 개념과 유형. 수록처: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書畵 遺物』

이전, 고려 후기 ~ 조선 초기에는 채색산수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저색도(著色圖), 착색산(着色山), 저색산(著色山), 착색도(着色圖)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⁵⁾ 이 중 조선시대 궁중화원들을 기록한 문헌에 따라 진채(眞彩)를 사용하여 진채산수(眞彩山水)라 지칭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채색의 농도로 진채, 담채를 구분하는 것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채색(彩色)을 사용한 채색산수로 지칭하였다.

채색산수는 주로 관념산수(觀念山水)로 그려져 왔다. 관념산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풍경을 그려낸 산수로, 이상향의 세계의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자연요소들이 장식적으로 표현되곤 한다. 이러한 산수화의 요소들과 이를 표현한 기법들이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꿈을 이야기하기 적합하다 생각하여 이를 위해 모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모사연구

모사작을 진행한 청록산수도병풍(靑綠山水圖屏風)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19세기~20세기 초 제작된 유물이다. 산봉우리와 배 등의 경물을 평행사선 구도에 따라 배치하고, 부감법(俯瞰法)⁶⁾을 적용하여 표현했다. 청록색 산과 언덕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현했다. 이 표현법을 통해 잔잔한 물결 위로 여러 척의 배들이 유유히 떠다니는 평화로운 광경을 보여준다. 화려하고 강한 채색으로 그려진 다른 대다수의 청록산수 병풍과 다르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맑은 채색과 그려진 꽃나무를 통해 봄의 산수풍경을 그렸다 유추할 수 있다. 비슷한 작품으로 개인소장 누각산수도6폭병풍(樓閣山水圖六幅屏風)이 있는데, 채색기법과 선묘의 유사성 등으로 같은 작가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대상 유물의 특징인 부드러운 색감을 살리며, 원 작품의 사이즈

圖錄』, 第14輯 : 靑綠山水圖. p. 186.

5) 박혜영. (2017). "조선 후반기 靑綠山水畵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p. 15.

6) 부감법(俯瞰法) : 미술 그림의 구도를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는 방법. 우리말샘

보다 축소하여 모사를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고색화(古色化) 된 유물의 현재 상태 그대로 모사하는 현상모사보단 그림이 처음 그려진 상태를 추정해 그리는 복원모사가 원 작품의 봄 느낌을 재현해 줄 것으로 생각되어 복원모사로 진행을 하였다. 이에 바탕재로 사용한 비단은 기존 모사작품들이 진행하던 방식으로 오리나무를 이용한 비단 염색으로 고색을 표현한 대신 기본 정련(精練)⁷⁾작업만을 하여 준비하였다. 산맥의 바탕색이 되는 황색 안료를 전체 채색하기보단 드러난 부분만 칠해 위에 올라갈 다음 채색이 혼색이 되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밝은 석록(石碌)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분위기를 밝게 잡아주었다. 다른 청록산수병풍 유물에 비해 도드라지게 진한 청빛은 화려한 푸른빛인 석청(石靑)을 사용하는 대신 무게감이 느껴지는 남청(藍靑)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작가미상, 〈靑綠山水圖屏風〉, 비단에 채색, 70.2×288.7cm, 19세기~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5] 장지영, 〈靑綠山수도모사〉, 33.5×140cm, 비단에 채색, 2017

7) 정련²⁾ 精練 [정넌] : 2. 섬유를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순물을 걸러 없애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Ⅲ. 작품연구

앞서 채색산수의 이론적 정의를 알아보고 모사연구를 통해 요소와 표현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의미의 꿈을 표현하여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연구작을 진행하였다. 모사연구를 통해 배운 산수의 전통적인 요소와 구성을 반영시킨 작품, 산수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안의 요소만을 등장시킴으로 꿈을 표현하는 연구작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표현의 폭을 넓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3.1 현상으로서의 꿈

사람들은 수면시간에 꿈을 꾼다. 꿈을 꾸는 것을 누군가는 그저 편안한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피곤한 현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꿈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현실의 도피처이자 놀이공간, 다양한 세계를 간접경험으로서 보여주는 여행지였다. 흥미로웠던 꿈을 꾸면 내용을 서로 나누며 웃고, 아리송한 꿈을 꾸면 꿈풀이를 찾아보고, 무서운 꿈을 꾸어 기분이 뒤숭숭 할 땐 이야기하며 이를 위로받는 등의 모든 여러 행위들이 행복이었다. 꿈은 현실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재료로 하지만 그 형태를 달리하여 친숙한 동시에 낯선 세계이다. 이러한 꿈의 모순적인 부분 때문에 꿈의 모습은 흥미롭고 환상적이라 느껴진다. 이를 전달하기 적합한 채색산수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보물산(Eldorado)



[그림 6] 장지영, 〈보물산(Eldorado)〉, 비단에 채색, 27×45cm, 2018

과거의 기억들이 꿈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꿈은 아주 현실적인 꿈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특정 부분의 기억들이 확대되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되며 현실과는 다르게 외곡이 된다. 그렇게 꿈의 풍경은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실 풍경과는 많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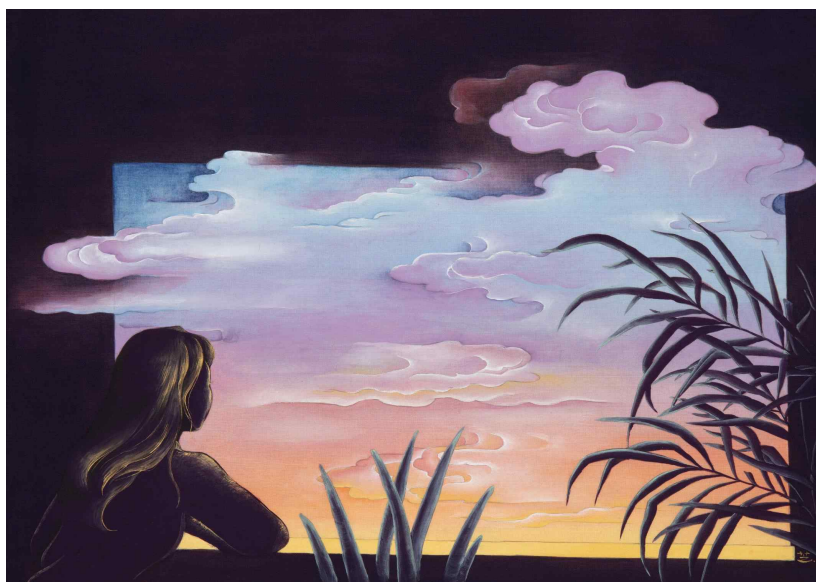
사진의 ‘보물산(Eldorado)’ 작품은 필자의 고향인 대전에 위치한 작은 산이다. 보문산(寶文山) 이름의 유래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오는데, 뭐든 넣으면 그 양이 불어나는 보물주머니가 형제의 욕심에 의해 땅속에 파묻어져 흙이 들어가 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금씩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르지만 ‘보물산(寶物山)’이라 불리던 산이 후에 보문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큰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화와 보문산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부감법으로, 높은 곳에서 본 보문산의 풍경을 그렸다. 보문산 전체의 풍경을 그린 게 아닌 작가 본인의 추억이 담긴 보문산 서쪽의 작은 등산을 커다란 산 하나로 표현하여 어린 시절 실제보다 더 커다랗게 느낀 산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외의 부차적인 부분들은 의도적으

로 구름을 사용해 동선을 자르고 가려주어, 동산이 온전히 하나의 산으로 보이게끔 하고, 이를 장식적인 구름을 사용해 표현함으로 설화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그림에 표현된 작가 본인의 추억의 장소들은 위치가 기본적으로 지도상의 위치와 비슷한 곳에 배치했으나, 외의 나머지 부분은 나무와 길, 구름으로 가림으로 경험한 것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옛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기엔 고색화처럼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여 오리나무 열매로 진하게 염색한 순지를 1배접 해주었고, 이는 두껍게 채색한 산과 열은 구름 채색을 더욱 대비되어 보이게끔 하였다.

외에 동화적인 느낌을 주고자 나머지 소품 부분은 혼색 되지 않은 강한 원색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해 다소 칙칙해 보일 수 있는 고색화에 화사한 느낌을 주었다.

바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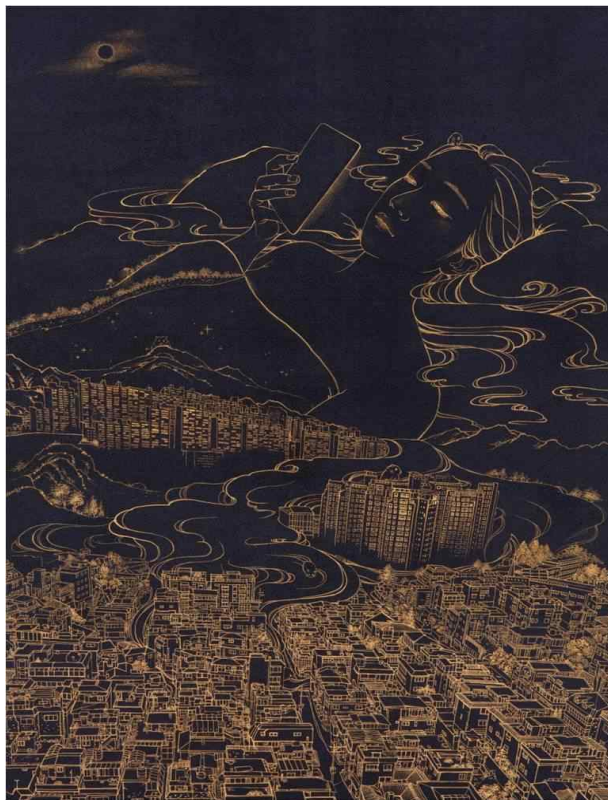
[그림 7] 장지영, 〈바라보다〉, 비단에 채색, 33×43cm, 2019

구름은 꿈과 그 결이 닮아있다. 구름은 물(수증기)이지만 물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다가서면 흐릿해져 보이지 않는다. 나의 꿈이 내 무의식 감정

집합의 시각적 심상이라 하면 구름은 대기 중 수증기의 결빙, 승화작용에 의한 집합체이다. ‘바라보다’에서 그림 속 화자는 어두운 창틀 안쪽에서, 안쪽과 매우 대비되는 화려한 노을이 비치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형화 된 네모난 틀 모양의 어둠 속에 가만히 기대에 서 있는 모습은 희망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틀을 깨고 흘러들어온 구름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틀 안에 가둬두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일지라도, 꿈을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꿈꾸던 것으로 물들고 있는 희망적인 상황으로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채색산수의 요소 중 구름을 현대적인 색감으로 표현을 하였고 나머지 요소들은 어두운 자색(紫色) 분채를 사용해 그림자로 표현, 이상과 자신을 가두는 틀인 현실을 대비되어 보이게 하였다. 구름 부분은 배채법을 이용하여 비단 뒤에서 혼합하여 색을 전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하였고, 구름 부분 묘사는 제일 묘사가 필요한 부분만 전면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해 주며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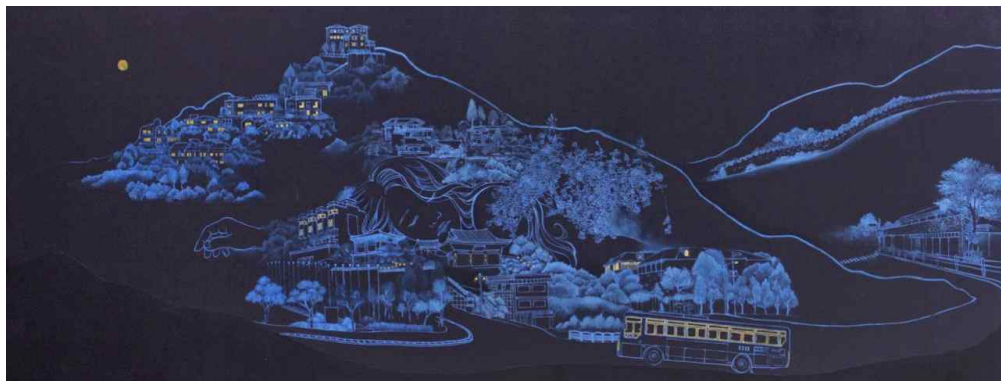
서울 이곳은



[그림 8] 장지영, 〈서울 이곳은〉, 비단에 금니, 82×62cm, 2019

‘서울 이곳은’은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이방인의 느낌을 동화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한밤중에도 조명으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 모습은 니금(泥金)기법을 사용하여 남색 비단 위 금니산수(金泥山水)처럼 나타내었고, 그림 속 화자는 도시풍경과는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게 산으로 마치 이불을 덮고 있는 거인, 혹은 산신령처럼 표현하였다. 숨은그림찾기처럼 조그마한 햄스터들이 도시 주택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데, 이는 뻑뻑하게 차 있는 낯선 도시풍경 속에서도 어느새 그 곳을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일상 속의 자그만 행복감을 나타낸다. 또 머리카락을 마치 구름이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하여 그림 속 인물이 꿈을 꾸는, 바로 잠이 들기 직전이라는 것을 표현하며, 장식적인 느낌도 더 하여 보다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성북(城北)



[그림 9] 장지영, 〈성북(城北)〉, 비단에 채색, 36×100cm, 2021

성북(城北)은 위의 작품과 동일하게 거인화한 사람이 등장하여 산 아래에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다. ‘성북’은 서울에 처음 올라와 성북동의 작은 기숙사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버스가 다니지도 않는 종점 위의 높은 산등성이에 성처럼 올라가 있는 고급주택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성같이 절대로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위압감을 주었다. 아주 화려한 곳에 속해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지만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의 꼬트머리, 버스가 멈추는 곳에 홀로 누워있는 쓸쓸한 수면을 차가운 느낌으로 그리고자 하였다.

커다란 고급주택들은 인물의 머리 위쪽으로 누르듯이 배치되어있는데, 이를 장식화 된 구름으로 밑의 풍경과 나누어, 다른 신선들의 공간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앞서 작업한 ‘서울 이곳은’처럼 북적거리는 도심의 풍경이 아닌, 여유롭다는 듯 고요한 불빛만을 뿜어내는 성북의 야정은 금니가 아닌 새벽 달빛의 색을 표현한 밝은 석청石淸으로 선묘하였다. 차가운 석청빛을 대비시키기 위해 비단과 배접할 한지는 염색이 되어있는 검은색을 사용하였고, 새어 나오는 빛들을 포인트로 금니를 사용해주었다.

3.2 이상향으로서의 꿈

이상향(理想郷)은 서양권 문화에선 유토피아(utopia)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다. 이 세계는 주로 고된 현실과는 대비되는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공간이다. 필자는 이상향의 세계를 과한 정보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동에서 벗어난 휴식의 공간이자 안식처, 또는 과거 추억의 아름다웠던 부분, 현실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가상의 판타지(fantasy)세계라 생각한다.

동아시아 미술에서 이상향을 그려낸 작품들은 한(漢)나라 때부터 제작되었다. 동아시아의 산수화, 특히 관념산수화는 이상적인 자연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로 이상경을 표현했다 할 수 있다.⁸⁾ 이러한 관념 산수화를 바탕으로 색감, 형태의 변형을 주어 연구작을 진행하였다.

선녀와 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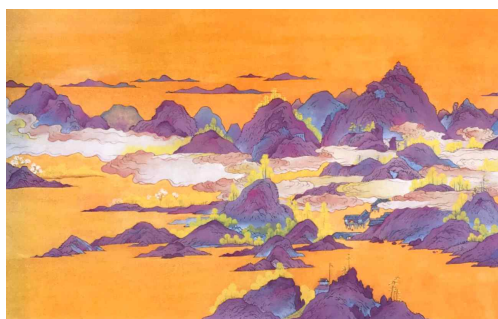
[그림 10] 장지영, <선녀와 천사>, 비단에 채색, 21×14.8cm, 2018

8) 한정희. (2014). 동아시아 산수화에 보이는 이상향. 수록처: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p. 208.

위 ‘선녀와 천사’는 본 작품을 통해 산수의 모습을 다 나타내지 않고 채색산수화의 다른 대표적인 요소인 구름으로 꿈을 나타내었고, 구름의 색감, 무게감 연구와 등장하는 소품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각 선녀와 천사는 동서양을 아울러 좋은 소식이나 물건 등을 전달하는 전달자들로 여러 작품에 등장한다. 특히 인물의 특정 생김새보다 소유하고 있는 지물(持物)에 따라 그 정체를 유추할 수 있다는 특징 서로 같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의 꿈에서 욕망, 소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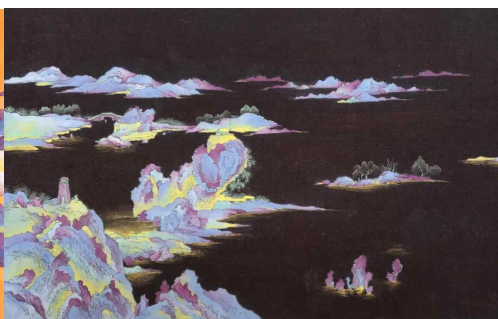
필자는 위의 작품에서 선녀와 천사 각각에 종교회화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여 석채를 이용해 진하게 채색하여 돋보이게끔 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재인 구름은 부러 염료를 사용하여 그려내었다. 가볍고 따스한 느낌을 주고자 밀바탕을 황토, 다자(多紫)색의 붕채를 이용해 바람해주었는데, 의도했던 것 보다도 무겁게 깔려 열린 입자가 작은 열린 하늘색의 석청을 이용하여 덮어 채색하였다.

노을산수, 산수야경



[그림 11]

장지영, 〈노을산수〉, 비단에 채색, 28×70cm, 2020



[그림 12]

장지영, 〈산수야경〉, 비단에 채색, 28×70cm, 2020

본 연구작 ‘노을산수’와 ‘산수야경’은 이 전 진행한 청록산수도 모사작의 초본을 가져오되, 색감을 변형시켜 현대적인 색채의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존 유물의 초본의 소재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색감만을 현

대적으로 변형시켜 다양한 시간대의 풍경 표현을 연구하고, 색감 변형으로 몽환적인 풍경연구를 시도했다. 두 작품 모두 의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천연석채와 함께 보다 다양한 색채 표현을 위해 인공석채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산수의 색은 연보라, 연하늘 색의 파스텔 색감으로 지는 해의 햇빛을 받아 반사한 산수를 표현하였고, 기존 유물에선 염료로 파도 부분만 일부 채색된 바다 부분을 배채기법으로 노을은 인공석채의 채도 높은 주황색, 야경은 남색과 붉은보라 분채를 이용해 조색하여 물감이 채색된 부분에서 오는 무게감은 덜고 각 작품에 필요한 색감만 비치도록 하였다. 조그만한 건물들과 나무들, 태점(苔點) 등의 일부 부분을 밝은 노랑, 초록으로 표현하여 빛이 적은 풍경과 대비되어 햇빛이 반사되어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휴식



[그림 13] 장지영, 〈휴식〉, 종이에 채색, 70.2×288.7cm, 2020

다음 작품들은 휴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꿈을 꾸는 것은 잠을 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꿈, 이상향으로서의 꿈 둘 다 존재 자체로 큰 피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위로와 휴식이 되기도 한다.

휴식이 될 때의 꿈은 반복되고 지치는 일상에서 떠나는 휴양지 같은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위 작품에서 인물은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그저 평범할 수 있는 휴식의 모습이지만 산보다 큰 인물의 모습은 현실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편안한 기분을 극대화시켜 표현하기 위한 바탕제로 안료를 잘 잡아주어 화려한 표현이 가능한 비단보다는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순지를 택하였다. 채색과 묘사는 최소한으로 덜어내고 열게 표현하여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휴식의 장면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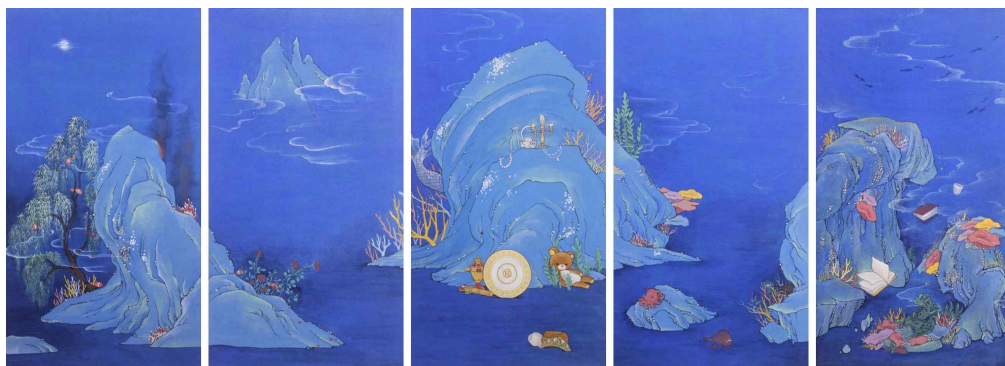
바다의 휴식



[그림 14]
장지영, 〈바다의 휴식1〉, 비단에 채
색, 37×21.5cm, 2021

현상으로서의 꿈을 꾸기 직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누구나 몸이 밑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일상적으로 흔히 겪는 현상이지만, 마치 어딘가 무중력상태가 되어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보통 가위눌렸다 라고도 말하는 수면마비의 한 증상인 이러한 느낌은 마치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드는 듯 한 느낌과 닮아있는데, 이때 느끼는 무중력은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편안히 안기는 기분도 들게 한다. 이러한 상태를 바다, 깊은 심해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심해의 바닥과 커다란 바위 같은 산호는 바다의 산수풍경으로 해석하여 그 느낌을 살려 괴석의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사물들과 바닷속 생물들, 가상속의 생물들이 곳곳에 함께 배치되어있어 동화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 공간이 실제 바닷속이 아니고 꿈 속임을 표현하고 있다.

선명하고 알록달록한 수중 식물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수중생물들은 인공석재의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였고, 깊고 청량한 심해의 반짝임은 비추는 빛에 따라 반짝이는 효과를 위해 입자가 큰 석청으로 표현하여,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훨씬 바다의 반짝임을 극대화하여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5] 장지영, <바다의 휴식1~5>, 비단에 채색, 37×21.5cm(×5), 2021

IV. 결론

본 연구는 꿈을 주제로 한 산수화 작품들을 통해 꿈에 대한 표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모사를 통해 배운 전통적인 채색산수 표현과 색감을 연구하였고, 이후 채색산수의 소재들만을 이용하여 꿈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 응용하였다.

이번 연구작들은 전통 채색산수화를 기본 바탕으로 시작하여 전통적인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산수의 기본 요소 중 일부를 사용하며 색채 등의 다른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표현, 꿈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현대 채색산수화를 작업하였다. 꿈의 재료는 꿈을 꾸는 사람 내면의 욕망에 닿아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현상으로서의 ‘꿈’은 이상향의 세계와 매우 닮아있다. 필자는 ‘현상으로서의 꿈’, ‘이상향으로서의 꿈’ 두 가지 정의의 꿈을 작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작을 진행하였고 꿈이라는 의미가 혼재되어있어 명확히 나눌 수 없고 조금씩 서로의 특징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분류로 나누어 구분한 꿈은 그것을 나타내는 주체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 그 자체, 혹은 그 욕망이 재료가 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 개인은 작업 주제인 꿈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하며 표현 방법, 구성, 내용 등 작품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더 나아가 작품에 숨겨진 여러 요소들을 찾아내며 작품과 관람자가 소통을 하고자 한다. 소통을 통해 관람자가 꿈이라는 개인적인 세계에서 무엇이든 되어 보며 작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연구작들은 그 갈래의 실질적인 초석이 되었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러내는 작품이 아닌 조금 더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까지 계획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갈로. 강관식저. (2010). 『중국회화이론사』. 파주: 돌베개.
- 김영건. (2003). "꿈에 대한 심리학적 및 생리학적 고찰".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자. (2020).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17). "조선 후반기 靑綠山水畵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휘준. (2015). 『조선시대 산수화 특강』.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양채민. (2013). "C. G. Jung의 꿈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꿈에서 꿈을 꾸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완혜. (2015). "중국 청록산수화의 발전과정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미. (2006). 조선시대 청록산수화의 개념과 유형. 수록처: 『國立中央 博物館 韓國書畫 遺物圖錄』, 第14輯 : 靑綠山水圖. 208-221.
- 이준남. (2007). 『꿈의 혁명』. 서울: 도서출판세홍.
- 정윤희. (2017). "<夢遊桃源圖> 卷軸과 世宗代 書畵合璧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희. (2014). 동아시아 산수화에 보이는 이상향. 수록처: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184-192.
- 지크문트 프로이트. 이환 저. (2014). 『꿈의 해석』. 서울: 돌출새김.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reams

Jang, Jiyoung

Master of Fine Art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Humans have various dreams in their lives. Sometimes, I dream that things I have experienced are regenerated again, and I have countless dreams, such as fantastic dreams that do not seem to exist in reality. Previously, humans studied this unknown phenomenon with curiosity.

A dream is a series of visual images that occur during sleep. Ancient people considered dreams to have an exemplary function to inform the future of divine beings, and have since been studied academically by various philosophers, but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made thanks to their ambiguous and non-visible characteristics.

I wanted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a dream with linguistic meaning first and to distinguish it from various meanings in my work.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definition of a dream was largely rooted in the unconscious desire of the subject, or the phenomenon in which the desire

was fulfilled, and thus the definition of a dream was expressed without distinction.

The landscape painting, which began as the background of the ideal world depicted in ancient East Asia's ancient history, is intended to be used to express the background of the dream world. The representative works of coloring arithmetic were selected to study the basic elements of arithmetic to express dreams in the works, and the methods of expression in the background.

Based on this, the research works aim to show contemporary landscape color research and the world in dreams. The goal was to interpret dreams into a world that fully reflects instinctive and raw desires and emotions, communicate with visitors through stories conveyed by various speakers, and heal each other in the process. These research works have become a practical cornerstone for the goal and will later expand the world of works to works that can be interpreted through a more philosophical approach.

【KEYWORD】 Landscape, Colored landscape, Dream, Utopia, Creation